

1. 2015 시사토론

쿠바의 변화와 미래

- 일시: 2015년 9월 4일 금요일
- 장소: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세미나4실

사회

김기현(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토론

기현서(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소장)

송기도(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현(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김기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주최 제3회 시사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쿠바의 변화와 미래’입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해주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기현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쿠바와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기현서: 제가 2002년에 발령을 받아서 쿠바에 갔는데, 제 임무는 2003년에 코트라 무역관을 개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와 관계가 몹시 안 좋았습니다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무역관 창설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2년 동안 총 7회에 걸쳐 방문하여,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세미나, 박람회, 상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 말에 사실상 무역관 창설에 합의하고, 쿠바 외교부에서 국가평의회까지 제안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귀임했습니다. 2004년에 국가평의회의 승인을 받고 2005년에 코트라 무역관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쿠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현: 네, 2005년 쿠바에서 코트라 설립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기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송기도: 네, 저는 쿠바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페인에서 박사학위를 할 적에 학위논문 주제가 ‘쿠바혁명과 니카라과혁명에 따른 멕시코의 외교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쿠바혁명 때 취했던 대외정책, 그리고 니카라과혁명 때의 대외정책에 관해 연구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의 정치적 의미를 살피다 보니까 자연히 쿠바에 관심을 보이게 됐죠. 그런데 최근에 쿠바가 자유주의 세계에 갑자기 드러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 저 역시 그런 점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도 라틴아메리카에는 대부분 가봤는데 쿠바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가봐야죠. 이런 시사 토론이 쿠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참 좋습니다.

김기현: 박사학위 논문으로 쿠바와 인연을 맺으셨네요.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상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쿠바에 관한 글을 쓰셨던데요?

이상현: 저는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렇게 남미를 주로 연구하니까 쿠바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을 때는 문화소 비자 정도였죠. 그때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Buena Vista Social Club)이 유행이었고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때인 지난 7월에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한 열흘 정도 머물렀습니다.

김기현: 최근 분위기가 어땠던가요?

이상현: 처음 갔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93년에 처음으로 콜롬비아에 갔는데, 그때 콜롬비아에서 느꼈던 것을 이번에 쿠바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라틴아메리카 분위기랄까요. 옛날 라틴아메리카 모습?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이전의 라틴아메리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재밌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하겠습니다.

■ 쿠바의 매력

쿠바는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가?

김기현: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쿠바에 한국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연간 100명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연간 3,000명 정도로 급

증했다고 합니다. 수교를 떠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쿠바에 열광하는지, 쿠바의 매력이 뭔지, 그런 것을 잠깐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보시니까 쿠바의 매력이 뭐던가요?

이상현: 우선, 치안이 좋아요. 요즘 한국인이 많이 가는 루트가 멕시코 칸쿤-아바나더라고요. 보통 밴쿠버-아바나 루트인데, 밴쿠버는 어학연수로 많이 가죠. 칸쿤은 신혼여행을 많이 가요. 칸쿤과 아바나를 오가는 항공편도 많이 생겼어요. 또 여행사가 칸쿤과 아바나를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아마도 쿠바에 가는 이유는 변하기 전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김기현: 송기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기도: 쿠바의 역사가 우리 한국인을 끄는 매력이 있을 거예요. 사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이후로 공산화되고 한국과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던 말이지요. 그래서 쿠바라고 하면 ‘빨간 나라’로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카스트로 이전인 바티스타 정권 때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전쟁 때 의료지원을 한 나라거든요. 어쨌든 쿠바의 노래라든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부르지 않지만 예전 사람들은 「아바네라」, 「관타나메라」 같은 노래를 알잖아요? 그런 걸 보면 향수도 있고…. 또 쿠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과 깊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관광지였고, ‘카리브 해의 진주’라고 할 정도로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1940년대와 50년대에 충분히 우리에게 어필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가 들어서고 공산화가 된 다음에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왔으니까 쿠바는 ‘금단의 파라다이스’, 이런 식의 관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미국과 관계도 호전됐으니까 한결 쉽게 가게 된 거죠. 관광이 칸쿤과 연결된다니까 아주 좋은 아이

디어 같아요. 저는 라틴아메리카 여행의 중심지가 쿠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것도 많고요. 그래서 역사성, 관광성,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중요한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김기현: 기현서 소장님은 예전부터 자주 방문하셨나요?

기현서: 예, 자주 방문했죠. 송기도 교수님 이야기와 같은데요. 미국 저널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쿠바에 많이 가는지 설명하면서 ‘금단의 열매’(forbidden fruit)라는 말을 썼어요. 아무래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또 단절된 사회이고…. 아시다시피 쿠바가 관광이라는 상품을, 문호를 개방한 것이 199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뒤에 소위 ‘특별 시기’가 시작되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문호개방을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행 금지된 곳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1960년대 피델 카스트로나 체 게바라라든지 혁명이 약간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섞여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바나 구시가지(Habana Vieja. 영어로는 Old Havana)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잖아요? 리모델링은 가능하지만 철거나 증축은 금지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시작되면서 역설적으로 구시가지가 자본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가 리모델링됐을 경우에 100년 전 카리브 해 스페인 도시가 재탄생하는 거죠. 또 쿠바 해변 중에서 바라데로(Varadero) 해변을 빼놓고는 외국자본에 개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쿠바는 사실상 카리브 해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죠. 앞으로 쿠바가 발전한다면 세계적인 관광국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복합적 요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쿠바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그러니까 지구에 몇 남지 않은 공산체제 국가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쿠바의 바라데로 해변

가봤던 곳에 대한 호기심이 큰 것 같은데요. 일반인도 쿠바에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서 네이버, 다음, 구글에 연관검색어로 쿠바를 쳐봤더니, 쿠바 하면 한류, 여행,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국, 야구, 이런 검색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을 보니까 ‘밤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국 사람들이 뭔가 호기심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담입니다만.

송기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바티스타 정권 말기에 쿠바를 미국의 신창이라고, ‘아메리카의 신창’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만큼 미국인들이 쿠바에서 소위 ‘섹스관광’ 같은 걸 많이 했고, 그게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쿠바는 예전에 환락지로 명성을 날렸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쿠바가 어느 정도까지 관용

을 보일 것인지는 다른 문제겠지만,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력이 있겠죠.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태양, 해변, 맑은 공기, 그것만 보고 거기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그걸 어디까지 통제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이상현: 멕시코 교민사회에서 남자들끼리 쿠바에 놀러 간다고 하면 부인들이 못 가게 한다고 해요. 골프 하고, 뭐 그런 행태도 있지 않을까요?

기현서: 바티스타 정권 시절에 미국의 여러 가지 부패 행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델의 혁명은 그런 것을 무척 배척하고 거부했죠. 현재도 관광객이 걸으로 보기에는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게 자유롭고 개방되고 편한 것 같지만,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공산주의예요. 전부 추적당하고 있어요. 예컨대 제가 호텔에 가서 움직이는 동선은 저쪽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그래요. 관광객은 못 느끼는 거죠. 어느 술집에 가서 나쁜 짓 하면 파악이 돼요. 그래서 매춘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적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어느 사회인들 없겠습니까만, 사실은 아주 청렴한 곳이 쿠바입니다.

■ 쿠바의 존재감

1959년 쿠바혁명은 어떤 의미인가?

미국에서 쿠바계는 어떻게 영향력을 확보했나?

김기현: 쿠바의 인구가 1,100만 정도잖습니까? 그리고 면적이 한반도의 1/2 정도니까 규모가 큰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도 쿠바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굉장하거든요. 규모를 넘어서는 특별함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9세기에 라틴아메리카 낭만

주의를 주도한 것이 쿠바문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20세기 봄 소설에서도 알레호 카르펜티에르(Alejo Carpentier) 같은 사람이 주도적인 작가 중 한 사람이었고, 음악에서는 맘보, 차차차, 이런 것들이 세계 대중음악을 1940년대, 50년대에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잖습니까?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호세 마르티(José Martí) 같은 사람은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 사상의 아버지처럼 여겨지거든요. 물론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사상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1959년 쿠바혁명 이후에 제삼세계 운동을 주도하다시피 했잖아요? 사실상 비동맹국가의 리더 역할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쿠바를 벗어나서, 미국에 사는 쿠바인을 봐도 정말 대단하죠. 현재 미국의 국회의원 중에 쿠바계가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3명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규모에 비해서 쿠바가 지니는 뭔가 특별한 존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께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송기도: 문학에는 문외한이라서 모르겠고, 역사적·정치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스페인이 300년간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했을 때 멕시코 베라크루스나 파나마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가는 선박은 전부 쿠바의 아바나를 거치게 돼 있었죠. 무슨 말이나 하면, 아바나가 교통의 관문이었어요. 그리고 라틴아메리카가 1810년부터 1824년까지 15년 사이에 독립했는데, 쿠바는 마지막(1898년)까지 식민지로 남아 있었던 말이지요. 쿠바가 계속해서 중심지가 됐던 거죠. 지금은 쿠바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도시로서 아바나가 중심이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1960년대에 쿠바가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고, 혁명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고 했던 말이지요. 그래서 쿠바가 혁명의 전진기지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미

국이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저항한 곳이 쿠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미국에 맞섰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쿠바 사람들의 영향력이 강한 건,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우리나라와 달라서 직선제가 아니라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미국의 선거인단 수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에 워싱턴DC 3명을 합해서 538명인데, 주에서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선거인단 수가 제일 많은 게 캘리포니아 주예요. 55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아주 크죠. 10%에 가까우니까. 둘째가 텍사스 주이고, 셋째가 뉴욕 주, 넷째가 플로리다 주예요. 미국은 보통 승리하는 정당이 정해져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선 공화당이 절대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선 항상 민주당이 이기죠. 그런데 ‘경합 주’(Swing State)라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어요. 그중에서 플로리다 주가 제일 큼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에서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죠. 그런데 플로리다 주에 100만 명의 쿠바인이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몰표로 가요.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백인들은 거의 민주당, 공화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쿠바에서 온 이민자들은 다르죠. 2000년 대선에서도 앨 고어가 미국 전체에서는 표를 더 많이 얻었지만 플로리다에서 지는 바람에 27표가 날아갔죠. 그래서 앨 고어는 떨어지고, 부시가 당선됐죠. 그렇게 보면, 쿠바 이민자들은 수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플로리다 주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는 쿠바 이민자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이민자들과 달라요. 많기로는 멕시코 이민자가 400만으로 제일 많죠. 그런데 쿠바 이민자들은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으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바로 정착할 수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이민자들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야 했죠. 캘리포니아 주나 뉴멕시코 주나 이쪽은 멕시코인 수가 워낙 많으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있지만 말이죠. 쿠바 이민자는 소수지만 미국 사회에 바로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나라는 작지만 돈이 적은 건 아니었던 거죠. 또 흩어져서 살지 않고 모여 살았던 것도 힘을 키울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이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쿠바의 공식 인구조사를 보면 인종 구성에서 흑인과 물라토(흑백 혼혈)가 32%로 나와요. 그리고 68%가 백인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쿠바의 백인이 망명이나 이민을 하는 바람에 점점 흑인화돼서 쿠바에 흑인과 물라토가 60%가 넘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백인 인구가 40%가 넘거든요. 카리브 해 국가 중에서 백인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죠. 대부분 흑인과 물라토가 90%가 넘는데, 쿠바만은 유일하게 백인 인구가 50% 정도입니다. 이런 인종적인 면도 쿠바의 특별함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속설입니다만.

송기도: 아무리 속설이라고 해도 인종주의적 발언 같은데요?(웃음) 혁명 후 쿠바에서 난민으로 떠난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구의 10% 정도예요. 그런데 쿠바가 원래 백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60% 정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칠레를 백인국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칠레는 메스티소(백인과 원주민의 혼혈)가 60% 정도 되고 백인이 적어요.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나라 저 나라 땅을 넓게 만드시고 땅속에 자원도 주셨는데, 천사 미카

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에는 석유를 그렇게 많이 주시고 다른 나라에는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이 “미카엘아, 내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할지 나중에 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결국 인종이 나빠서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거든요. 백인들 나라였으면 잘살았을 텐데 흑인, 몰라토, 원주민, 메스티소가 많아서 못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백인이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가 가장 잘살아야 하고, 메스티소가 많은 칠레는 못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빈부를 인종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김기현: 예. 어쨌든 쿠바는 카리브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기도: 이상현 선생님, 문학 쪽으로 말씀해주시는 게 어떨지?

이상현: 문학 쪽은 잘 모릅니다만, 쿠바가 잘하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쿠바가 잘하는 것 중에 스포츠가 있어요. 쿠바가 팬 아메리카 대회나 올림픽 같은 데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 가장 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에 속해요. 그건 좀 놀라운 일이죠.

기현서: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가혹한 정책으로 쿠바가 20세기 후반 21세기 초까지 마지막 희생자가 됐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강력한 방어정책을 썼죠. 결국 미국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를 ‘작은 거인’(Little big giant)으로 만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역설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으로 가진 자들은 다 망명을 떠났어요. 제가 1980년대에 마이애미에서 근무했는데, 중심 지역에는 쿠바 사람이 반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라틴아메리

카 창녀는 있어도 쿠바 창녀는 없다.” 쿠바 사람이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거죠. 쿠바 혁명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재산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쿠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에게 피델에 관해 물어보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쿠바에서 피델은 카피탄(Capitán)입니다.¹⁾ 카피탄 하면 피델이죠. 그런데 이 말에 깊은 애정이 스며 있어요. 그럼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엠바고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겁니다. 아무튼, 쿠바혁명의 성공을 말할 때 늘 하는 이야기는 쿠바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다르게 평등(equality)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향 평준화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평등을 이룬 거예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쿠바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파는 사람에게 그걸로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자기도 공무원이라고, 봉급 받고 산다고, 자기는 파는 일이 직업일 뿐이지 정부에서 봉급 받는 공무원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의료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해서 일반 시민이 되게 한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됐다면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교육한 거죠. 그래서 쿠바의 전체적인 인간 능력(human capacity)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몇만 명 의사가 해외로 나가서 봉사하고, 소위 바이오 의학 쪽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고, IT시스템에서도 강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쿠바혁명 이후 마이애미로 망명한 쿠바인을 가리켜 쿠바에서는 ‘배신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

1) 여기서 ‘카피탄’은 군대 계급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용법으로 ‘대장’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다 - 편집자.

이 쿠바가 개방되면 마이애미에 사는 쿠바인이 들어가서 쿠바를 재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쿠바 정부가 그걸 가장 견제하고 있어요.

■ 쿠바와 미국의 국교 재개

관계 개선으로 쿠바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미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김기현: 그 문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쿠바에 특별함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쿠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쿠바의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인 레오나르도 파두라(Leonardo Padura)가 쓴 글을 보면, “우리 쿠바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하다. 그래서 지금 쿠바가 이렇게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쿠바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2014년) 12월에 미국과 쿠바 정상은 관계 개선을 선언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정상이 만난 이후로 6개월 동안 실질적 변화가 있었는지, 그 점도 말씀해주세요. 송기도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송기도: 예, 너무도 잘 알려진 뉴스여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작년 12월 17일에 버락 오바마와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가 동시에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많은 언론이 그 소식을 두고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1961년에 미국과



아바나 주재 미 대사관 건물

쿠바가 단교했으니까 53년 만에 국교를 재개한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53년 만에 국교를 재개한 것이니까 아주 큰 사건이죠. 특히 부시 정부 때는 미국이 힘을 바탕으로 한 대외정책을 펴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고 소위 ‘리셋’(Reset) 외교를 하면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와 관계 개선에 들어갔고,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쿠바와의 관계 개선이죠.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미국에 아무런 실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3년 12월에, 미국은 먼로 독트린 폐지를 공식으로 선언했어요. 먼로 독트린이라는 게 원래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1823년에 발표한 건데, 실은 유명무실하게 100년간 유지돼 오다가 루스벨트 대통령이 라틴아메리카 개입정책을 펴면서 다시 끄집어낸 거거든요. ‘이 지역은 내 것이다’라는 것인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런데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왔죠. 그런데 그 정책을 2013년 12월에 미국 국무장관이 폐기한다고 선언했고, 오바마와 라울 사이에서 관계 개선 기운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추모식에서 만나 악수할 때 이미 분위기가 감지됐죠. 2014년 12월 17일에 정식으로 국교 재개를 발표하고, 그 후로 제가 알기로 네 차례인가 양측이 만나서 지난 7월 1일 대사 관계 재개를 발표했죠. 그때까지는 스위스 대사관을 통했는데, 7월 20일 정식으로 양국에 대사관이 개설됐어요. 이렇게 양측이 왕래하면서 아주 많은 변화가 생겼죠. 하지만 국교를 정상화했다고 한꺼번에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진행 되겠죠.

그런데 쿠바보다는 미국이 아쉬운 쪽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쿠바가 ‘깎’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안 해주면, 우린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쿠바가 더 세게 나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미국이 매달린다는 인상을 받았 습니다. 물론 쿠바가 경제적으로 무척 아쉬운 처지에 있지만, 정치적으로 는 미국이 더 아쉬운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이제 지구에 냉전이 없는데도 미국은 15년을 끌어왔잖아요. 헬름스 버튼법(Helms-Burton Act, 1996년 대 쿠바 경제제재 관련 법) 같은 걸 만들어서 쿠바를 완전히 죽이려고 했지만 쿠바는 절대 죽지 않잖아요. 표현이 과해서 그렇긴 한데, 미국이 지난 50 년간 쿠바 목을 비틀었는데도 쿠바는 죽지 않았죠. 기현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델 카스트로는 피델 카스트로가 아니라 쿠바입니다. ‘피델’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충직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쿠바 사람들은 ‘피델’이라고 부르지 ‘피델 카스트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쿠바가 죽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미사일 위기가 끝난 뒤

에 케네디와 흐루쇼프가 쿠바를 침공하지 않기로 협상했잖아요. 그래서 외침에 대해선 안전이 보장됐지만, 국제 경제는 완전히 봉쇄됐잖아요. 쿠바는 1962년 우루과이 Punta del Este(Punta del Este)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회의에서 축출됐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안건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쿠바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쿠바가 더 자신이 있는 거죠. 목 좀 더 돌아간다고 죽겠느냐는 거죠.(웃음)

김기현: 이번 관계 개선으로 쿠바가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쿠바가 얻은 것은 뭐고 미국이 얻은 것은 뭡니까? 기현서 소장님?

기현서: 미국이 준 것도 별로 없고, 쿠바가 얻은 것도 별로 없어요. 쿠바가 정치적으로 얻은 것은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교섭을 2년 정도 하고, 작년(2014년)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관계 개선을 발표하고, 올 7월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약 2년 7개월 동안 양국이 한 것이 대사관 개설입니다. 대사관을 개설하려고 그동안 조금씩 주고받고 했던 거예요. 아바나의 말레콘에 미국의 이익대표부가 있었어요. 카스트로가 항상 연설하던 곳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이익대표부 지위를 대사관 지위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송금제한이나 여행제한도 풀어주고 그 밖에도 몇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경제봉쇄(embargo) 해제까지 가야 할 길이 아주 멍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 상황은 대사관 개설까지라고 봅니다.

김기현: 경제 쪽으로만 보면 쿠바가 얻은 것이 많죠. 미국인의 쿠바 여행과 송금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그렇게 미국이 쿠바에 준 것은 분명히 있는데, 미국이 얻은 것은 뭡니까? 이상현 선생님?

이상현: 팩트를 말씀드리면, 12월에 합의할 때 양쪽에서 정치범을 풀어주고, 국교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제스처가 있었어요. 쿠바도 2011년부터 정치범을 꾸준히 석방했고요. 오바마도 여행 제한, 송금 제한을 계속 완화해왔고, 쿠바도 거기에 꾸준히 화답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자 정식 행동에 들어가서 작년 12월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2015년 1월에 여행을 자유화했고, 무역과 금융 거래 제한 조치도 완전히 풀어준 건 아니지만 완화했는데, 대부분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 조치로 가능한 것이었죠. 다시 쿠바가 정치범 53명을 석방했는데, 2011년 이후로 정치범 몇백 명이 풀려난 거죠. 그 대가로 미국은 반체제 인사로 분류한 정치범을 석방해주고, 올 5월에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빼냈고, 그리고 대사관 개설이 된 겁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많은 건 아닌데, 2011년부터 꾸준히 주고받으면서 대사관 개설까지 온 거죠. 사실 이제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남지 않았고 봐야죠.

■ 앨런 그로스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나?

미국이 쿠바를 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기현: 그런데 이번 관계 개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앨런 그로스(Alan Gross)의 석방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쿠바가 앨런 그로스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미국이 경제적인 혜택을 쿠바에 줬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상현: 그렇긴 합니다만, 미국도 풀어줬잖아요? 서로 풀어준 거죠.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는 다섯 명 풀어줬는데, 쿠바는 한 명밖에 안 풀어줬다’는 말도 나왔어요.

송기도: 그런데 앨런 그로스를 쿠바가 풀어주고 협상을 시작한 것이지, 석방 자체가 큰 성과는 아닌 것 같고요.

이상현: 계기가 됐죠.

송기도: 사실은 그 전에 쿠바와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그로스 교수가 들어갔거든요. 아이티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2009년에 간첩혐의로 잡혀서 15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상황이 악화됐는데, 쿠바가 앨런 그로스를 풀어준 거죠. 쿠바는 석방하기 전에 미국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달라’, ‘경제제재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미국은 당연히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 대신 미국은 외교관이 쿠바 전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대사관 개설 전에 그렇게 요구했는데 쿠바가 거절했어요. ‘미국 너희 그러면 안 되



2014년 12월 17일 쿠바에서 석방되어 미국에 도착한 앨런 그로스

지. 반체제 활동을 하려는 게 뻔한데, 인정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관계 개선은 계속 진행됐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관광, 개인 송금 규제 다 풀어주고, 비행기도 마이애미에서만 뜨다가 이제는 미국 내 열 몇 군데 공항에서 뜨고 있어요. 대사관도 개설이 됐으니 엄청나게 변했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쿠바는 뭘 얻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럼, 미국은 어떤 이익을 얻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2013년에 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국가 공동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33개 국가가 전부 거기 참여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35개 나라가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를 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쿠바는 들어가 있고... 이걸 어떤 의미냐면, 1962년에 미주기구에서 미국이 쿠바를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쿠바를 넣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거예요. 미국으로선 상당히 위험한 거죠. 미국의 영향력이 안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주기구와 CELAC 중에서 어떤 국제기구가 더 중요할까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848년에 설립된 미주기구는 수명을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CELAC으로 가는 건데, 미국이 쿠바를 끌어안으면, CELAC을 만들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원래 CELAC이 국제기구 성격이라기보다는 각국 정상 모임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쿠바를 끌어안고 국교정상화를 해버리면, 미주구에 다 들어오는 게 되잖아요. 그럼 굳이 CELAC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김기현: 이번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지정학적인 요인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앨런 그로스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압박을 통해서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가 붕괴하도록 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정책을 199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간 해왔는데도 쿠바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쿠바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햇볕정책이죠. 쿠바와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그쪽이죠. 그게 오바마의 대쿠바 정책인데, 미국 내 보수파의 반대가 워낙 심합니다. 쿠바계 정치인들의 영향력도 크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방향을 정하고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도 미국은 쿠바의 민주화를 위해서 반체제 세력에 인터넷도 보급해주고 하면서 쿠바 내에서 민주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었거든요. 그 책임자가 앨런 그로스였어요. 그런데 쿠바가 이걸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해서 앨런 그로스를 구속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앨런 그로스는 15년 형을 받았죠. 그런데 오바마는 쿠바와 관계 개선을 하려면 앨런 그로스를 어떻게든 빨리 석방시켜야 했어요. 앨런 그로스가 감옥에 있는 상태로 쿠바와 관계 개선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앨런 그로스를 풀어주라고 했지만, 쿠바는 못 풀어주겠다며 버텼죠.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갔고, 오바마는 앨런 그로스 때문에 쿠바와 관계 개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앨런 그로스는 미국 정부가 빨리 힘을 써서 자기를 데려가주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자기가 왜 잡혀 있는지 모르겠고, 건강 상태도 너무 나빠져서 1년 안에 자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했죠. 만약에 앨런 그로스가 쿠바의 감옥에서 죽거나 자살한다면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는 거죠. 오바마의 관계 개선 정책은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앨런 그로스를 서둘러 석방시켜야 했어요. 미국은 쿠바와 물밑 접촉도 하고, 정치범 교환도 하

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나온 게 2014년 12월의 국교정상화 선언이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앨런 그로스의 석방이었어요. 그 대가로 미국은 쿠바에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줬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대사관도 설치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주고, 그렇게 술술 풀렸죠. 앨런 그로스 때문에 풀지 못했던 것을 앨런 그로스를 석방하면서 모두 풀었으니 앨런 그로스 문제가 사실상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송기도: 김기현 교수님께서 앨런 그로스를 책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CIA 직원이에요?

김기현: 아니에요, 이익대표부로 파견된 직원이에요.

송기도: 제가 알기로 미국 국무부 국제개발청(USAID) 하도급 업체 직원이에요.

김기현: 그렇죠.

송기도: CIA가 정보원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설치하는 직원인데 너무 크게 다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앨런 그로스는 두 나라가 부딪치는 시점에 문제를 풀어주는 접점에 있는 사람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온 민간업체 직원이 쿠바에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거겠죠. 쿠바 정보기관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체포됐겠죠. 예전에 우리 우주비행사가 러시아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걸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2000년대 들어서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차베스, 룰라, 키르치네르가 등장하면서 라틴아메리카가 커지기 시작하고, 이게 CELAC에까지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것 봐라, 스스로 대안이라는 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위협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저는 시몬 볼리바르가 19세기 초

에 독립투쟁을 벌인 이후로 라틴아메리카가 가장 강력해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앞서 제가 먼로 독트린을 이야기했는데, 먼로 독트린의 내용은 외부 세력이 라틴아메리카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둔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럽 파시스트들이 라틴아메리카에 들어와서 설치고 다니자 미국이 적잖이 당황했던 거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선린정책(1933년)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끌어안았어요. 그전에 미국은 군대를 파견해서 개입했는데, 선린정책을 선언하고 루스벨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쿠바의 플래트 수정안(Platt Amendment) 폐지(1934년)예요. 플래트 수정안은 쿠바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루스벨트가 폐지하면서 앞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파시스트가 아니라 미국 편을 들었죠. 그렇게 파시스트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 뒤에 냉전이 시작되고,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미국은 60년대, 70년대에 공산주의 세력을 쫓아냈죠.

그런데 이제 뭐가 들어왔죠?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니카라과 운하를 500억 달러에 건설한다, 브라질에서 페루까지 양양(兩洋)철도를 건설한다, 아르헨티나 대두는 다 사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세 번째 도전이 닥친 거예요. 니카라과 운하가 생기면 파나마 운하는 우습게 되는 거예요. 2000년에 중국의 대라틴아메리카 무역 거래액이 100억 달러였는데, 2013년에 2,570억 달러가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25배가 늘었어요.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죠. 중국이 돈을 들고 라틴아메리카로 달려드니까 미국은 영향력을 되찾으려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선린정책을 폈듯이 쿠바와 손을 잡으면서 다른 국가들에도 제

2차 선린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미국에는 이득이에요. 앨런 그로스는 그 물꼬를 터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 거죠.

김기현: 앨런 그로스가 국무부 국제개발청(USAID) 직원인 건 맞죠. 그런데 국제 개발청에 라틴아메리카 민주화 촉진 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2,000만 달러인가 그래요. 그 자금을 라틴아메리카 민주화, 특히 쿠바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죠. 쿠바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인터넷 민주화예요. 사이버 공간의 민주화예요. 돈을 거기에 다 썼습니다. 그걸 앨런 그로스가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쿠바 체제변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앨런 그로스였어요. 그래서 쿠바 당국에서 체포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로스가 CIA 스파이도 아닌데 왜 구속했느냐면서 석방하라고 요구했어요. 그 전에 잠깐, 텔레수르(Tele Sur)라고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만든 방송국 있죠? 거기서 NED가 “미 제국 주의의 가장 대표적 상징이다.”라고 했어요. 쿠바에도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앨런 그로스의 석방을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쿠바는 “그러면 미국에 수감된 쿠바의 포로들을 풀어달라.”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다섯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풀려나고 세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앨런 그로스는 스파이가 아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협상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죠.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문제를 중재하면서 “앨런 그로스는 스파이는 아니니까 쿠바가 미국 스파이를 몇 명 풀어줘라.”라고 했어요. 미국 CIA 직원으로 쿠바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앨런 그로스와 함께 풀어주면 미국도 쿠바 스파이를 풀어주도록 중재한 거죠. 그렇게 타협이

성립돼서 앨런 그로스를 석방시킬 수 있었어요 어쨌든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에서, 말씀하신 라틴아메리카의 지정학적인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앨런 그로스 석방 문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 관계 개선의 전망과 의미에 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을 보는 시각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이제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현실주의적, 회의주의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기현서 소장님,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2015년 9월 20일 쿠바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 쿠바와 미국 관계의 전망

미국은 쿠바의 체제변화를 포기했는가?

미국은 대쿠바 경제봉쇄 정책을 해제할 것인가?

기현서: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에서 현재까지 성과는 상주 공관 설치예요. 그 이상은 실질적인 게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쿠바가 얻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례적인 혜택, 앨런 그로스를 포함한 상호교환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대사관 개설로 일단락됐어요.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국의 입장에서 대쿠바 정책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대쿠바, 대라틴아메리카 정책에는 게임 체인지(Game Change)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송기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썼던 선린정책 혹은 케네디의 ‘진보를 위한 동맹’ 정책처럼 구체적으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인을 보냈고, 2009년 미주기구에서 박수 갈채를 받고, 환영한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체제변화’(Regime Change)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누차 말했듯이, 그런 목표가 바뀐 게 아니라 전술이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 전술은 쓸모없기 때문에 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상당히 냉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쿠바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쿠바는 라울 카스트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전술을 바꿨을 뿐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체제변화라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앞으로 양국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전망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연구소(Wharton

School)에서 나온 저술을 보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더군요. 하나는 슬로모션(Slow Motion) 시나리오, 지지부진하다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남북 협상처럼 말싸움하다가 방향성도 못 찾고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점진적 관계 개선(Steady Movement on a Middle Road) 시나리오. 이걸 양국 관계가 천천히 개선될 것이다. 협상에 장애요소가 많고 서로 고집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내주고 말고 하겠느냐? 미국 정서도 그렇고, 쿠바 자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빅뱅(Big Bang) 시나리오가 있어요.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간에 갑자기 경제봉쇄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결론을 보면 점진적 관계 개선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 EIU(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연구 기관)에 따르면, 라울이 물러나겠다고 공약한 2018년에 정리하고 떠나리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정리한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봉쇄를 풀게 한다는 뜻입니다.

김기현: 이상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이상현: 원래 미래 예측은 안 하는데, 토론이니까 하겠습니다.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2018년까지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경제봉쇄 해제인데, 경제봉쇄 자체가 헬름스 버튼법과 엮여 있습니다. 헬름스 버튼법은 쿠바에서 다당제 선거실시와 국유재산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반환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쿠바가 좀 더 민주화가 돼야 공화당도 납득하고, 의회에서 헬름스 버튼법을 개정하다든지 폐기한다든지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봉쇄 해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의회라는

게 민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의에 따를 가능성이 크긴 한데, 몇 가지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금년 7월 여론조사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국인의 72%가 경제봉쇄 해제에 찬성하고 있어요. 이 72% 중에서 공화당 지지자가 중요한데, 공화당 지지자가 55% 정도거든요.

김기현: 반대 여론이요?

이상현: 아니요, 찬성이요.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경제봉쇄 해제 찬성이 55%로, 절반이 넘거든요. 그런데 1월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40% 정도만 경제봉쇄 해제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공화당 지지자들 찬성이 15%나 늘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경제봉쇄 문제도 2~3년 내에 해결된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김기현: 송기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도: 저도 2018년이 쿠바 미래에 아주 중요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라울이 이미 퇴임을 천명했고, 2018년에 승계할 디아스 카넬(Miguel Díaz-Canel Bermúdez)은 혁명 이후 세대거든요. 그때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쿠바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쿠바에 엄청난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하지만 쿠바의 대안적 성격에 주목해야 합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를 자기 세력권으로 보고 뒷마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쿠바가 갑자기 대안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카스트로 이전에 쿠바는 친미적이었고, 철저히 미국에 종속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카스트로가 나오면서 반미로 돌아서고, 대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종속이론가들도 그랬고, 1970년대 안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nk)라든가 핀토(Luiz de Aguiar Costa Pinto)

같은 사람도 종속을 탈피한 국가로 쿠바를 이야기했죠. 쿠바가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미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뺐던 정책이 앞서 이야기한 ‘진보를 위한 동맹’이었어요. 이때(1960년대) 미국은 콜롬비아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싶지 않았겠지만, 쿠바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바뀐 거예요.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편이 경제 성장에 훨씬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델 국가가 바로 콜롬비아였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진보를 위한 동맹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

중요한 건 쿠바가 미국의 종속을 벗어나서 교육과 의료, 즉 복지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라틴아메리카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과 의료 분야가 잘돼 있습니다. 차베스가 ‘볼리바르 운동’을 할 때 교사와 의사를 보냈어요. 지금도 라틴아메리카에 의사를 수없이 보내고 있어요. 쿠바는 미국의 철저한 경제봉쇄 상황에서 지기 길을 갔는데, 그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쪽에서 생깁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쿠바는 친미로 종속됐다가 반미로 고립됐지만 대안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미국은 쿠바를 고립시키려고 했지만, 고립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쿠바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쿠바는 과거와 다르게 주체성을 내세울 거란 말이죠. 지금도 미국과 대화하면서 상호존중, 독자성,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가 봉쇄를 풀어줄 테니 확 안기라’고 하고 싶겠죠. 그런데 쿠바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 내에도 있어요.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도 했는데, 작년에 오바마가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결정하면서 미국 플로리다, 특히 마이애미 쪽에 있는 쿠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걸 보면

70%가 외교관계 개선에 찬성합니다. 무슨 말이나면, 세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피델이 보기 싫어서 보따리 싸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됐고, 이삼십 대 젊은 세대에는 그런 성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관계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쿠바가 낙후됐다 하더라도 라울은 쿠바의 이익이랄까, 혁명에 대한 자존심이랄까, 그런 걸 지키리라고 봅니다.

김기현: 예, 쿠바와 미국의 관계에서 남은 게 경제봉쇄 해제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상현 선생님의 말씀대로 미국 내 여론은 상당히 무르익었지만, 공화당 내에 아주 강력한 반대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쿠바에 체제변화가 있으면, 그때 경제봉쇄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죠. 결국, 관건은 쿠바의 반응인데, 쿠바의 민주화나 쿠바의 경제개혁 같은 문제가 미국과 쿠바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휴식한 뒤에 이 주제로 토론을 계속하지요.

■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을 보는 다양한 시각

현재의 화해 무드는 지속될 것인가?

근본적인 전략의 변화인가, 아니면 전술의 변화인가?

중국의 진출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김기현: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보는 긍정적 시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현실주의적, 회의주의적 시각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보는 극단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미국 대사관도 쿠바 체제변

화를 위한 트로이 목마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고, 경제제재 해제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쿠바에 설치된 것을 두고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시대의 마감이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감을 보여준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선생님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이상현: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인 전망은 미국과 쿠바 관계가 국교정상화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인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라울 카스트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사실 이걸 쿠바 문제고, 미국의 경제봉쇄 해제가 핵심인데, 저는 미국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봉쇄의 주체니까요. 물론 봉쇄 해제 조건은 다당제 선거라든가 국유재산 반환이라든가 쿠바 정치체제의 실질적인 민주화인데, 지금 다수당이 공화당이니 단기간에 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대통령이나 사법부가 아니라 의회가 결정하니까 미국 내 여론이 그렇거나 국민이 원하면 공화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두어 가지 변수가 더 있는데, 첫째는 올 7월 여론조사도 72%가 관계 개선에 찬성하고, 공화당 지지자들도 지난 1월 40%에서 55%로 찬성 비율이 높아졌고, 다수 라티노도 관계 개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에 미국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은 아니더라도 의

회에도 변화가 있는 3년 정도 뒤에는 경제봉쇄 해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둘째, 오바마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했고, 그 결과로 무역, 금융, 통신, 제약, 농업,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쿠바와 교류·교역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교류·교역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면 이익단체가 의회에 압력을 가할 요인이 생기고, 그런 요인이 미국 의회 내에서 소위 ‘정치적 역동성’(Political Dynamics)을 형성해서 의회의 기류가 변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농민 그룹도 소고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그리고 상원을 움직이는 건 농민 그룹이거든요. 미국의 다코다 주나 몬타나 주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곳인데, 상원의원을 두 명씩 배출해요. 이 농민 그룹이 경제봉쇄 해제에 찬성하고, 앞으로 찬성률이 더 높아지겠죠.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말하자면, 당장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과거로 되돌아갈 일은 없고 조금씩 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기현: 송기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전망인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와 미국의 관계는 대국과 소국의 관계거든요. 3억과 1천1백만. 쿠바의 위치가 거점지역이라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미국에 큰 영향은 없죠. 그런데 쿠바가 미국에 경제봉쇄 해제를 요구하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쿠바로서는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처럼 가리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과 소국의 관계에서 강대국은 말로 하다가 수틀리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나죠. 하지만 작은 나라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소국을 보호해주는 것은 국제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자본으로 건설 중인 니카라과 운하(2019년 준공 예정)

쿠바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연대할 수밖에 없죠. 이미 이야기 했듯이 이걸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쿠바와 미국도,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도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달라지겠지요. 그 상황 변화는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중국이라고 봅니다. 2000년에 100억 달러였던 중국과의 무역거래액이 지금은 스물다섯 배가 넘어서 2,170억 달러가 됐습니다. 중국은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와의 무역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 교역국이 됐습니다.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중국 사람들이 잘살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밀밭이었던 팜파스 70%가 콩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13억 인구가 고기를 먹어대니 가축한테 먹일 콩 사료가 더 많이 필요해졌죠. 아르헨티나에서

는 수출에 유리한 품목을 생산해야 하니까 작물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중국은 군사 로비까지 하고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을 통제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일이죠.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 세력을 꺾고 니카라과에 운하도 건설하고, 베네수엘라에 투자도 하는 게 아주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북경에서 올해 1월에 CELAC 경제장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향후 10년 내에 라틴아메리카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금 약 2,000억 달러인 무역 규모를 5,000억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물론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죠. 지난 2년간 중국이 갑자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어서 그 여파가 브라질에 미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미국이 쿠바를 안고 가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이 신경 쓰겠다는 것으로 보일 테니, 저는 특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상황 변화라는 건 중국 같은 세력이 심각한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경우겠죠. 그러니 미국도 쿠바와 라틴아메리카를 단속해야죠.

김기현: 이상현 교수님은 미국 국내 정치 관점에서, 송기도 교수님은 라틴아메리카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전망하셨습니다. 기현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현서: 먼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면, 오바마 정부가 대쿠바 봉쇄정책을 고수하는 공화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다음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쿠바 쪽에서는 우선 라울 카스트로의 공산당 지도부가 무역, 투자 등 모든 부문에서 미국을 온전한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 고수해온 반제국주

의 이념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미국은 전략적 목표는 그대로 두고 전술을 바꾸는 식으로 쿠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쿠바의 체제 변화라는 전략적 목표는 그대로지만 전술을 바꾼 거죠. 그런데 쿠바 쪽에서 보면, 경제봉쇄 해제와 체제변화를 맞바꿀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쿠바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냉전이 끝나고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특별한 시기의 수준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러기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중국이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다른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쿠바 정권은 체제변화 없이 경제봉쇄를 해제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8년까지 내놓을 것은 내놓으면서도 쿠바에서 정치적으로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쿠바의 체제변화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하고 싶은 것은 니카라과식이든 베트남식이든 정권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고, 경제봉쇄는 미국 내 여론이 무서우니까 결국 해제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쿠바 경제

미국의 경제봉쇄만 풀리면 쿠바는 고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쿠바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쿠바의 개방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기현: 예. 그러니까 쿠바와 미국 관계에서 마지막 남은 문제가 경제봉쇄 해제인데, 공화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공화당을 달래서 경제봉쇄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은 쿠바의 민주화 같은 쿠바

의 내부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는 정도로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현서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쿠바 내부의 경제개혁의 방향, 그리고 쿠바 민주화에 대한 전망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쿠바 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경제봉쇄만 해제되면 쿠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리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쿠바 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이상현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상현: 쿠바 경제는 두 가지를 따로 놓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쿠바 경제의 기본적인 장단점과 경제개혁은 서로 다른 사안이니깐요. 쿠바 경제를 말할 때 노동력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특히, 고령화 문제가 지적되죠. 고령화가 여러 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노동력은 고령화돼 있으면서 산업은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산업도 활성화하고, 농업 부문에도 투자하고, 관광업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죠. 장점으로서는 노동자 학력이 높고, 치안 상태도 좋고, 사회보장제도 수준으로 보자면 상당히 안정적인 사회여서 문호를 개방하면 임팩트가 상당히 크리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경제 여건은 개발도상국 수준인데, 드러나는 문제는 선진국형이라는 게 쿠바 경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봉쇄만 풀리면 투자하겠다는 제안이 상당히 많아서 적게 잡아도 150억 달러 이상 직접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더라고요. 쿠바 경제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가 고령화돼 있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거의 75%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반면 제조업은 비중이 낮고, 저축률이나 투자율이 모두 낮은 상황

이어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었던 경제성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입니다. 어쨌든 개방하면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는 당연히 좋아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메사 라고(Carmelo Mesa Lago)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쿠바 전문가이고 사회정책 전문가인 메사 라고가 2014년에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2011년에 시작된 라울 카스트로의 경제개혁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본 것인데, 물론 세계경제가 불안정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메사 라고의 결론은 과거 4, 5년간 쿠바 경제가 그다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봉쇄가 풀리면 어느 정도 성장은 하겠지만, 쿠바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가 선진국형이어서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네, 좋습니다. 송기도 교수님 말씀해주시지요.

송기도: 고르바초프가 1990년에 쿠바를 방문해서 소련식으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라고 했는데, 쿠바가 거부했죠. 그런데 2008년에 라울 카스트로가 정권을 이어받아서 아주 많이 개방했거든요. 물론 완전한 개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였는데, 큰 성과는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봉쇄돼 있으니 변화가 몹시 제한적이었죠. 미국은 쿠바와 무역할 수 없다는 식으로, 쿠바의 아바나항에 들어간 배는 6개월 동안 미국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식으로 제재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조건이 바뀐다면 쿠바 경제에 유리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리적 장점입니다. 수많은 미국 관광객이 쿠바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을 여행하는 미국 사람들이 꼭 들르는 ‘보틴’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오래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식사할 수 없을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

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오래전에 헤밍웨이가 거기에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그 식당이 마치 순례하듯 한번은 들러봐야 하는 성지처럼 된 것이죠. 그런데 헤밍웨이가 살았던 쿠바의 아바나라면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쿠바에는 헤밍웨이의 흔적도 많이 남아 있는데다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까지 있으니까요.

둘째, 강렬한 태양, 카리브 해의 바다. 이것이 수많은 미국인을 끌어들이 거라고 봐요.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자본이 쿠바에 투자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오는 게 훨씬 더 가깝잖아요?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플로리다에 가느니 이국적인 쿠바에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개방하면 쿠바는 엄청난 이득을 볼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은 미국에 이득 될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쿠바엔 큰 이익이 되겠죠. 아무튼 쿠바가 갖춘 큰 장점은 미국과의 인접성과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은 이미 시작됐고,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김기현: 저도 그런 요인 덕분에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다면 쿠바가 열대의 라스베이거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단한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기현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쿠바 경제의 잠재력에 대해서요.

기현서: 쿠바 인구가 1,100만 명 정도이고, 현재 관광객이 300만 명 정도인데, 경제봉쇄가 풀리면 첫 해에 14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500~600만 명이 들어가더라도 인구가 거의 1,700만 명에 이를 만큼 시장 규모가 커진단 말이죠. 그런데 경제봉쇄만 풀리면 경제적 잠재력이 높아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봉쇄가 해제된다

고 해서 쿠바의 정치·경제 시스템도 개방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쿠바의 경제를 구성하는 것은 쿠바의 정치 시스템이죠. 물론 경제봉쇄가 해제됐을 때 쿠바 경제는 성장할 겁니다.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경제성장률은 1.4%였는데, 올해는 4.4%, 내년도 4.4%, 그 후로는 5%대로, 현재 경제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쪽에서는 쿠바를 투자시장으로 보겠지만, 쿠바 쪽에서는 체제 유지가 관건이죠. 이런 문제는 자세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정부가 생산과 분배를 완전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이 1,000달러인데 누가 거기 가서 생산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어느 정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제봉쇄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테고, 쿠바는 현재의 정치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시장으로서 쿠바를 평가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완전히 개방됐을 때 투자시장으로 우리에게 유리할지, 지금처럼 닫혀 있을 때 유리할지, 이 문제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현: 경제봉쇄 해제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쿠바 내부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쿠바가 2014년 신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25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수백 건에 이르는 투자 신청에서 지금까지 다섯 건만이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기현서: 모두 일곱 건입니다.

김기현: 일곱 건인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투자가 급한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왜 진도가 느린지 살펴보니까 쿠바에 나이

든 혁명전사들 있잖아요? 라미로 발데스(Ramiro Valdés), 호르헤 마차도(Jorge Machado), 라울 카스트로는 물론이고, 이런 사람들이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산당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식이 있어서, 잘못하다가 동유럽처럼 정치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사태를 몹시 두려워한답니다. 그럼, 신세대, 차세대 지도자들의 성향이 어떨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미겔 디아스 카넬이잖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제 효율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효율성을 위해 혁명의 업적, 그러니까 교육·보건·복지 부문의 성과이겠죠, 그 성과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쿠바 지도부는 지금까지 개혁에 대해서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 신청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 관료가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쿠바에 도움이 되고 체제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투자 신청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서를 올리고, 위에서 최종 결재가 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중간 관료들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들도 일을 쉽게 추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미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현서: 외국인투자법은 1965년에 제정한 것을 2014년 3월에 개정했는데, 개정의 목적을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1월에 자기들이 유치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쿠바 정부가 필요한 외국 기업을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바혁명의 원인이 미국으로부터, 부패한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으니까 다시 그런 일이 반



쿠바의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한 미겔 디아스 카넬(오른쪽)

복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층과 혁명세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기현: 네, 그럼, 이상현 선생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상현: 제가 관광산업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도미니카공화국이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나라 관점에서 쓴 보고서를 보면 쿠바 이웃나라들이 쿠바가 개방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이야기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관광객이 약 300만 명 정도 왔는데, 더 오더라도 수용할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호텔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개방되더라도 관광객을 더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기에는 분명히 관광객이 늘어나지만, 그런 현상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1950년대에 대한 향수가 있는 미국 관광객이 처음에는 늘겠지만, 쿠바에 대한 향수는 금세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죠. 그러면 카리브 해의 다른 관광지와 별로 다를 바 없을 거라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관광산업이 쿠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리브 해의 다른 나라들은 쿠바의 개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고서였어요.

■ 쿠바의 민주화

쿠바는 미국의 요구대로 경제봉쇄 해제와 민주화를 맞바꿀 것인가?

아니면, 혁명 전통을 유지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도입할 것인가?

김기현: 그럼 정치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의 정치적 민주화, 나아가서 체제변화, 이게 경제봉쇄 해제와도 연결돼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국이 원하는 쿠바의 체제변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봉쇄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쿠바 체제변화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이 점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선생님, 말씀해주시죠.

이상현: 저는 국제관계보다는 한 나라의 정치나 경제를 해석하는 편인데, 쿠바 공산당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하는 일은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것이고, 제도 개혁이나 개방도 사회주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미국 정치인들도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쿠바 체제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방법만 바꾸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게 전제라고 보고, 2016년과 2018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에 5년마다 열리는 쿠바공산당 전당대회가 있고, 2018년 라울 카

스트로가 퇴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더 하기도 어렵잖아요? 2018년 이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해가 중요한데, 2016년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산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첫째가 의회의 권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쿠바의 인민회의는 거의 토론도 없이 도장만 찍었는데,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설 모임도 늘려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소위 ‘탈중심화’, 파워블록 내에서 ‘권력분산’(devolution)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짜 탈중심화, 즉 지방분권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Municipal) 단위에서 해외투자까지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진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후보를 지명하고 100% 표를 얻어 당선시키는 식으로 끝내지 말고, 선거 캠페인이나 공산당 후보자 사이 경쟁을 허용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지금 쿠바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은 쿠바의 다당제, 즉 공산당 이외의 당이 결성되는 것인데, 쿠바에서 이런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본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라울 카스트로 다음 대통령의 선출 방식인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를 갖추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거를 할지(공산당만 있는 상황에서 후보를 추천하든 어찌든), 아니면 당이 후보를 결정하고 찬반 투표를 할지,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안은 미국이 요구하는 다당제나 자유선거와는 거리가 멀지만, 어떤 식으로든 국민이 조금 더 정치에 참여하는, 조금 더 민주적인 권력 선출 방안과 권력 작동 방안에 대해

서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미국이 원하는 쿠바의 민주화 방향과 쿠바 내부에서 추진하는 민주화 방향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송기도: 미주기구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내정불간섭 원칙입니다. 각 국가가 통치형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개입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다원주의 선거와 정당 선거, 공정한 선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1979년 7월 니카라과에서 산디니스타 혁명이 성공했을 때, 미국이 계속해서 선거를 치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통해 다니엘 오르테가가 당선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지원한 비올레타 차모로에게 져서 오르테가가 밀려났죠. 결국, 미국 정책이 그런 겁니다. 사실 미국이 쿠바에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2018년까지 라울 카스트로가 집권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겠지만, 그 후에는 선거하게 되면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쿠바도 그 점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쿠바가 2012년엔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처음으로 공산당이 아닌 사람도 출마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도 결과는 후보들이 100% 공산당으로 나왔죠. 미국이 보기에선 그것도 불만스럽죠.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 자금을 들여서 선거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쿠바가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쿠바공산당은 혁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구조로 갔단 말이죠. 어찌 보면 중국식 체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미국이 강력하게 쿠바에 선거를 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니카라과 혁명 때는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강력한 보수, 소위 네오콘(신보수주의)이 등장해서 소련과 침예하게 대립하

면서 니카라과에 선거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마의 성향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쿠바에 선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쿠바는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요구하는지 지켜보겠죠. 어쨌든 쿠바 스스로 변화하느냐 아니면 밖에서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느냐는 문제인데, 쿠바는 밖에서 강제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울 카스트로는 혁명 1세대잖아요. 생물학적 나이도 있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2세대로 가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봐요. 그러나 외부의 강요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항하겠죠. 특히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쿠바의 체제변화, 다시 말해서 민주화라는 것은 반대 정치세력을 합법화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것이예요. 그래야 민주화를 인정하고 경제봉쇄 해제도 고려하겠다는 게 미국 공화당 세력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화당 세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쿠바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제봉쇄 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식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중국식 모델이라면 결국은 쿠바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해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건 체제변화가 없어도 미국이 경제봉쇄를 해제해준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야 중국식, 베트남식 모델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면 쿠바가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을 채택하고 싶다고 해도, 경제봉쇄가 해제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민주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송기도: 그래서 미국과 쿠바가 대화의 장에 나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은 쿠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제봉쇄 해제는 없다고 했는데, 대
사관까지 개관하고 일부 조건을 완화해주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아
까 설명한 대외정치적 요인, 세계적 환경 요인 때문에 결국 더 급한 쪽은
미국이라고 봐요. 네오콘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세계 여론도 썩 좋지 않
아서 미국은 지금 강경에서 온건 쪽으로 가고 있죠. 예를 들어 헬름스 버
튼법을 제정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죠. 그래서 유명무실한 법이 돼버
렸지만, 그래도 네오콘은 계속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겠죠.

김기현: 헬름스 버튼법에 다른 국가들이 반대한 것은 외국기업이 쿠바에 투자했
을 때 옛날 미국인이 소유했던 재화를 거래하면 미국에서 소송을 걸어
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워낙 반대가 심해서 사실
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헬름스 버튼법에는 그 조항 말고도 쿠바에 투
자하는 외국기업의 임원이나 CEO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기현서 소장님은 쿠바 민주화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기현서: 저는 경제봉쇄 해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선 쿠바 민주화, 소위 체제이행(transition)에 대한 저항 요인은
어떤 것이 있고, 압박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봤는데요. 2018년
라울 카스트로가 물러난다고 하는데 4~5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겔 디아스 카넬이 사실상 후계자처럼 힘을 내고 있고, 중
국식, 베트남식으로 가지 않느냐는 희망적인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시스템이 아주 강고하기 때문에
쿠바의 현재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정권 승계는 체제이행이 아니라는 겁
니다. 정치 시스템에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선거를 통해 변화하지는 않

는다는 거예요. 라울이 디아스 카넬에게 순조롭게 정권을 이양한다 하더라도 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아스 카넬도 후계자로서 전혀 입지가 공고하지 않다고 봅니다. 디아스 카넬이 국가평의회 부의장이 되기 전에 10년 넘게 부의장을 지낸 사람이 카를로스 라헤(Carlos Lage)입니다. 그런데 라울이 등장하면서 숙청이 됐거든요. 권력의 꿀맛에 취했다고 해서 숙청이 됐어요. 피델도 성명을 통해 라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바로 다음날 라헤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죠. 권력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 카넬의 입지도 견고하다고 볼 수 없죠. 결국은 군부에서 혁명세대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변화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생산과 분배와 유통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데, 바로 군부가 정부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군부를 통제하느냐. 라울이 통제하고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국방장관도 했고, 참모총장도 했고, 그러니까 관광산업, 호텔, 설탕산업, 광업, 수송, 은행, 환전소, 전부 군부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단맛을 봤는데, 체제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내놓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카스트로 형제와 그 지지세력의 기득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50여 년 동안 기득권을 유지했는데. 피델은 사실상 자식이 별로 없어요. 사생아들은 있는데, 미국으로 도망갔거나 있어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라울은 딸 셋과 아들 하나가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델이 라울한테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어요. 어쨌든 50년 이상 지배권을 행사한 기득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체제변화에 현실적인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라울이 있는 한, 느리게 갈 것이다.”(As long as Raul is there, they will go slowly)라고들 합니다.

김기현: 라울은 2018년에 물러나지 않습니까?

기현서: 물러난다고 했지만, 안 물러나고 더 할 수도 있죠. 여하튼 생물학적 생명은 끝나 가는데(지금 피델은 89세이고, 라울은 84세입니다), 결국 변화는 그 이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를 압박하는 요소로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봤더니,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상황의 불안과 대쿠바 원조 단절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과거 1989년(소련 해체)에 비할 정도는 아니어서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압박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쿠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변화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정리해봤습니다. 카스트로 형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쿠바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대미협상에서 전술적 변화는 가능할 것이나 그 한계는 체제 유지, 방어에 있다. 제 말씀은 쿠바가 민주화와 경제봉쇄 해제를 맞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지 경제봉쇄를 해제하기 위해서라면 전술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쿠바에는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쿠바가 손에 쥐고 있는 가장 센 대미 카드가 뭘 줄 아십니까? 관타나모 기지에요. 쿠바는 미국에 철수를 요구하는데 미국은 남아 있을 명분도 없어요. 관타나모 기지는 쿠바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죠. 미국은 카스트로 형제의 수명이 다해가니까, 공수부대식 전투가 아니라 단계별(step by step) 정책을 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쿠바로서도 기득권은 시간이 가면 사라지는 것이고, 디아스 카넬 같은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 과거의 굴레가 사라진 상태에서 좀 더 유연해질 것

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군부의 비즈니스 권력입니다. 이게 경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쿠바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김기현: 개혁 저항세력으로 말이죠?

기현서: 개혁 저항세력이면서 방향을 결정짓는 세력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식이 아니라 군부 비즈니스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서 쿠바 독자적인 방식으로 실험하지 않을까 합니다. 쿠바에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 잡으면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재벌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쿠바는 이런 기득권을 보호하는 모델을 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기현: 예.

송기도: 헬름스 버튼법을 다시 찾아보니까 쿠바 혁명정부가 국유화한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의 쿠바 내 재산을 외국기업이 사려고 할 때 금액이 5만 달러를 넘으면 해당 미국인 및 미국 기업에 대한 보상 및 소송을 허용한다는 것과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헬름스 버튼법을 언제 해제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쿠바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만 쿠바 경제봉쇄 해제가 가능하고, 쿠바의 민주화를 미국이 지원하며 민주화 과정에서 카스트로와 그 측근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김기현: 그렇죠. 법적으로 카스트로 형제가 물러나야 경제제재 조치 해제도 가능한 거죠.

송기도: 예, 카스트로를 퇴진시키고 측근을 배제한다는 게 헬름스 버튼법인데,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인 1996년 2월에 미국 비행기 두 대가 쿠바 공군

에게 격추당했어요. 그리고 그해 3월에 미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해 6월에 파나마에서 미주기구 제26차 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헬름스 버튼법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표결에 부쳤는데, 찬성 23, 반대 6, 기권 9,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 법안이 말도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2015년 1월 29일, CELAC 정상회의에서 정치적·이념적 차이를 넘어 멕시코나 콜롬비아 할 것 없이 33개 국가가 미국과 외교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카스트로가 제시한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쿠바 하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에는 쿠바를 꺼안는 게 결국 라틴아메리카를 꺼안는 셈이 된다는 거죠.

■ 한국과 쿠바의 관계

국교 수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쿠바에 진출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김기현: 미국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 관점에서 쿠바와 관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헬름스 버튼법이나 강경파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쉽지 않죠. 어쨌든 헬름스 버튼법은 미국 국내법이어서 의회에서 통과돼야 폐지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인 한국과 쿠바의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대사관을 설치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마당에 우리와 수교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수교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는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

해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송기도: 일단 쿠바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는 정치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더 가깝죠.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쿠바 관광을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수교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정세가 바뀌었다고 쿠바가 북한과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겠죠.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자존심이 있으니까 서둘러 우리와 수교할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우리가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와 국교를 맺고 있고 쿠바만 빠져 있는데, 쿠바와의 수교는 급하게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팽개쳐두는 것도 곤란하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쿠바와 관계를 개선하면 북한에 대한 압력 행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현: 네, 이상현 선생님, 말씀해주시죠.

이상현: 쿠바는 우리나라 4개 미수교국 중의 하나죠., 쿠바는 북한과 단독 수교국이니까 우리와 국교를 맺으면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다른 점에선 큰 의미가 없겠지만, 체제경쟁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쿠바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봐요. 남북한 관계를 생각할 때 쿠바와의 수교에 의미 있는 점이 뭐냐면, 오바마 정부의 난제들, 버마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쿠바까지 외교적 문제들을 그동안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북한 문제도, 물론 쉽진 않겠지만, 오바마가 남은 임기 동안에 해결한다면 쿠바와의 수교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도 체제경쟁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국내 언론에서도 쿠바와의 수교에서 경제적 이익이나 한류 같은 걸 자주 언급하던데 이것도 체제경쟁의 한 측면이라

고 이해한다면 외교적인 이익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경제적 측면은 언론이 조금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현서: 쿠바와 어떻게 수교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쿠바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대국의 체제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공산주의 체제면, 공산주의 체제 국가와 교역하는 방식을 따르면 되죠. 쿠바와 교역을 쉽게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경제봉쇄 등 법적 조치에 따른 제한도 작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봤고, 쿠바는 우리를 미국의 앞잡이로 보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앞잡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표현이죠. 자기네는 작은 나라인데도 미국에 맞서 꾀꾀하게 서 있는데, 우리는 잘살면서도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식의 비판이니깐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개선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쿠바와 간접적으로 교역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쿠바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제3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거래하는데, 그 에이전트가 파이낸스도 해주고 쿠바 정부에 납품도 해줍니다. 그렇게 간접교역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쿠바와의 교역을 제한했을 때는 금융거래도 쉽지 않고 해서 간접교역밖에 못 했는데, 직접교역을 하려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비즈니스 상황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 정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쿠바는 관광 부문부터 개방을 시작할 겁니다. 미국 관광객이 들어가면 미국의 요구가 드세질 테고, 그러면 경제봉쇄와 관련해서 쿠바가 내놓을 수 있는 100%의 정치대역에서 한 20% 정도를 미국의 100% 경제봉쇄와 맞바꾸고, 그다음에는 관타나모 기지



2013년 11월 1일 쿠바를 방문한 한류스타 윤상현

로 방어하면서 정권이 바뀔에 따라 변화를 늦춰갈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쿠바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봅니다. 쿠바에서는 지난 50년간 소비가 억제돼 있었으니까 가전이나 자동차 수요가 폭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바나를 리모델링하는 데 건축자재 수요가 예상됩니다. 철근, 시멘트, 석회 같은 건자재가 대량으로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인프라, 도로,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분야 수출실적을 보니까 2006년 2억 달러, 2007년 2억 달러, 2008년 3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지금은 5천만 달러 정도밖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에 3년 동안 7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내용을 보니 현대중공업에서 컨테이너 발전기를 수출했더라고요. 그밖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교량이라든지 각종 인프라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광업을 진흥시키려면 호텔도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폭발하기 전에 빨리 수교하고 교섭해야죠.

그런데 쿠바 사람들이 50년 동안 공산주의 시스템에서 살아온 탓에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아요. 결정을 잘못했다가 숙청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쿠바 사람이 한국과 관련된 제안서 같은 걸 관청에 들고 가면, 왜 갑자기 한국이 들어오느냐고 조사를 당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관료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결정하는 과정이 아주 길고 느립니다. 쿠바에서 예전에 무엇이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피델, 라울, 라헤, 세 사람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라헤는 숙청됐죠. 그런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교섭할 때 확답을 주지도 않고, 늘 상대방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교섭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외교부의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그 사람들과 진행하는 교섭을 성사시키려면, 그들이 품고 있는 의심을 없애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사람과 공론을 형성해서,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지지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쿠바를 상대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역관에 있으면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의 의심을 없애려면 1~2년간 꾸준히 신뢰를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리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국교수립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 쿠바의 바이오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화장품도 개발했어요. 제가 그 바이오 단지에 가봤는데, 상당히 넓

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싱가포르와 프랑스 업체(Avivax)가 헤파티티스 B를 포함해 두 가지 간염백신 판매 관련 협약을 체결해서 영국에서 기업을 상장했고 프랑스에서도 곧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권을 따낸 싱가포르 제약회사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쿠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심이 많아서 신뢰를 얻으려면 오랜 리드타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수요가 있다고 해도 아무나 들어와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게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김기현: 그러니까 쿠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마지막 남은 미개척 시장이고 잠재력도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교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기간이 필요하고, 미리 루트를 확보할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교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쿠바와 수교하고, 교류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송기도 선생님과 이상현 선생님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송기도: 쿠바는 1959년 혁명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60~7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 가서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도 이젠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멕시코혁명 때 쿠바로 건너간 한국 교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쿠바와 한국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할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한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관광을 하러 가더라도 그저 술 마시고 노는 유흥만 목전에 두고 쿠바에 접근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쿠바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해야겠죠.

이상현: 저는 체제경쟁이라는 접근보다는 차라리 경제적 접근으로 수교 문제를

바라보는 게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쿠바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중국 기업도 이미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쿠바가 마지막 남은 시장이지만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수교 문제를 체제경쟁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현: 쿠바에 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